

News

공모주 슈퍼워크 앞두고 은행에 돈 쌓인다

뉴시스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요구불예금 잔액은 약 642조원으로 전월대비 약 20조원 증가
풍부한 시중 유동성에도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은행으로 흘러들어오는 양상. 또한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카카오페이의 공모주 청약 수요도 한 몫

급증 가게 빚 절반, MZ세대가 받았다...코인폭락·금리상승 '어쩌나'

서울경제

최근 1년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의 절반 이상은 MZ세대가 차지
매년 3월말 기준으로 1년간 국내은행 가계대출 증가분 중 MZ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3.7%, 2020년 45.5%, 2021년 50.7%

펀드사태 이어 금소법 직격탄...은행권 사모펀드 판매 '급감'

뉴스1

은행 사모펀드 잔액 4월 6000억 줄어 올해 최대폭 감소
펀드사태로 불신 커진 데다 가입절차 어려워져 고객들 기피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 8월 시행 무산

한국경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공식 출범이 당초 예정(8월)보다 늦어질 전망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IT 수요 급증으로 관련 시스템 개발에 차질을 빚자 시행 유예를 요청해왔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

토스vs카카오페이, 증권 앱에서 3차 대전

해럴드경제

송금·결제서 각각 우위, MTS·슈퍼앱 정면 격돌 신용용자·ETF로 차별화, 디지털보험 확전 불가피

6월 빅4 손보사 자동차 보험 손해율 76.12%

서울파이낸스

주요 손보사 6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76.12%, 5월 75.95% 대비 소폭 상승
지난해 6월은 84.7%로 전년 동기 대비 개선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IPO 앞두고 증권사 청약수수료 유료화 선언

이코노미스트

한투·미래·삼성증권·KB증권 등 건당 1500~2000원 수수료 공모주 청약 열기 틈타 '수수료 장사'라는 비판도

미래에셋증권, 예탁자산 400조원 돌파

뉴시스

6월말 기준 예탁자산 400.5조원, 지난 8월 300조원 돌파에 이어 10개월만의 400조원 달성
해외주식과 연금자산 각 20조원 돌파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